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영미학과	이름	차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Iowa
파견대학	Iowa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2.08~23.05 (10개월, 2학기)
귀국여부	6월 중순 귀국 완료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Iowa State University는 미국 중부 Iowa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꽤 큰 편입니다. 교내에서 대부분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편의 시설들이 다양하고, 걸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내에 편의점을 제외한 큰 마트는 없기에 교내 버스를 타고 조금 나가야 월마트, 타겟, 하이비 등 다양한 마트들이 있습니다. 캠퍼스의 모든 것들이 예쁘고 좋았지만 특히 캠퍼스 풍경은 여름과 가을이 정말 아름다웠으며 모든 건물들과 편의 시설들이 깔끔했습니다.</p>
2022-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저는 초과 학기를 신청하여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미 학점을 거의 다 채워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덕분에, 각 학기 별로 한 두 과목은 듣고 싶은 수업들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ntroduction of Culture and Language:</b> 언어학 수업이었고 반 학기 동안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매주 강의 영상과 자료들을 업로드 해 주시고, 과제를 내 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강했던 언어학 수업과 비슷한 면이 있었지만 거의 매일 많은 양의 원서를 읽고 내용을 숙지한 후 매주 시험을 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에세이 과제도 1주일에 2번 정도 있었기에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난이도가 꽤 있었고 과제가 조금 힘들었습니다.</li> <li>● <b>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Studies:</b> 가을 학기 수업들 중에 두</li> </ul>

번째로 좋아했던 수업 중 하나였습니다. 국제학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국가들의 역사와 정치, 국제 사회의 문제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좋으셨고,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주시는 교수님 이셨습니다. 강의형 수업이지만 매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께서 질문과 퀴즈를 많이 내시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대답하고 토론하며 가산점을 얻는 수업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질문들에 적극적으로 대답했으며 교수님께서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 주시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격주로 퀴즈가 있고 중간, 기말시험이 있으며 조별로 준비하여 발표하는 발표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해당 수업과 잘 맞았기에 재미있었고 배워가는 것이 많았던 수업이었습니다.

- **Principle of Marketing:** 가을 학기에서 가장 애정이 많이 갔던 수업이었습니다.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하는 수업이었기에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 첫 수업을 듣고 그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수업 난이도는 꽤 있는 편이고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 학기 내내 같은 조로 수업과 과제, 발표를 진행하기에 조원들과 마음이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당에서 수강하는 대형 강의였기에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의 질문에 조별로 발표할 사람을 정해 본인과 조원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마이크로 발표하고 서로 경청하며 토론하는 분위기의 수업이었습니다. 과제 또한 조별이고 과제의 난이도 또한 높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개인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행히 마케팅 수업을 수강했던 적이 있어 생각보다 수월하게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학기가 진행될수록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학습량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배워갈 것이 정말 많은 수업이었고 아직까지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기억에도 남는 수업이었습니다.
- **Listening:** 학기 당 수강해야 하는 최소 학점을 맞추기 위해 수강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어 Listening이 아니라 경청과 청취의 올바른 자세와 방법에 대해 배우는 방법론적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열정이 넘치시고 좋으셨지만, 저는 그다지 흥미 있게 수강하지 못했습니다. 과제가 거의 매일 있었기에 그 양이 너무 많았으며 기말 과제는 인터뷰 과제였기에 기말 시험 기간에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고 인터뷰 일정을 잡고 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한 후 편집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일정이었습니다. 수업 자체는 배울 것이 많지만 저에게는 그다지 흥미롭지 못했던 수업이었습니다.

2023-1학기  
수업

- **Advertising Principle:** 정말 재미있게 수강했던 수업이었습니다. 광고학개론 수업이었기에 교수님께서 이론과 광고 예시들을 번갈아 보여주시며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수업 자체가 재미있었고 가끔 pop quiz를 보기도 하지만 평소 수업에 집중했다면 잘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한 학기에 시험이 4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또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기억하고 수업 교재와 필기를 잘 숙지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시험은 오픈북, 인터넷 시험으로 진행되었기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마지막 기말 프로젝트는 광고 제작이었는데, 동영상/포스터/SNS용 홍보 광고 등 유형은 교수님께서 다양하게 주시기에 이 또한 자신과 맞는 것으로 선택하여 제작 및 제출하면 됩니다. 교수님께서도 좋으셨고 학생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광고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을 바꿔주었던 수업이었고 광고의 기본 바탕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갈 수 있어서 유익했던 수업이었습니다.
- **Personal and Consumer Health:** Kinesiology 전공 수업이었고 기초/기본 건강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기초 건강학이라고는 하지만, 의학 전문 용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시험은 오픈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 내용들을 모두 암기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수업 시간 내에 옆에 앉은 학생들과 토론하고 종종 그 내용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수업이었지만 애정이 가장 많이 갔던 수업이었고 건강과 신체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워가는 지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험은 한 학기에 4-5번 보았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해 갔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학기 중, Health project가 있는데, 자신이 6주간 하고 싶은 건강 증진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관찰, 기록하여 6주 후 에세이를 제출하며 발표하는, 학기 중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은 까다롭고 점수 배점이 크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잘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ntro Music Listening:**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에 관한 수업을 수강하고 싶어 선택한 수업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역사, 연주법 등에 대해 배웁니다. 교수님께서 종종 게스트를 섭외하셔서 악기 연주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수업 또한 강당에서 수강하는 대형 강의이고 실시간 강의, 녹화 강의, 대면 강의 3가지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기에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하면 되어서 편한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대면으로 수업에 참석했지만, 몸이 좋지

	<p>않았거나 스케줄이 있었을 때는 실시간 강의와 녹화 강의를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매 수업시간 마다 정말 간단하고 쉬운 퀴즈들을 보는데, 강의 ppt에 답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만 한다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퀴즈입니다. 챕터가 끝날 때마다 시험이 있고 Final project로 콘서트 에세이 과제가 있는데, 분량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나 밴드에 대해 조사하고 작성하는 과제였기에 나쁘지 않다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양과 내용이 상당히 많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셨고 수업 분위기도 항상 좋았기에 전반적으로 유쾌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Dress and Diversity US Society:</b> 해당 수업 또한 인터넷 수업이었지만 한 학기동안 풀로 진행되는 수업이었습니다. 미국의 의복 문화와 다양성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었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최소 학점을 채우기 위해 수강했던 수업이었습니다. 매주 시험을 보고 에세이를 제출해야 했는데, 특히 에세이의 형식과 내용이 정말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에세이 작성을 위해 매주 논문을 읽고 분석해야 했고, 2시간 분량의 영화와 영상 자료들을 시청했기에 꽤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크게 배워가는 내용은 없었던 수업이었기에 의상 전공자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li> </ul>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개강 한 달 전쯤 미리 학교에 가서 교환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타국에서 온 여러 교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환/국제 학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거의 ISSO라는 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이 기관에서 교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들을 제공하니,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이후 각 학생별로 단과대가 정해지는데, 수업 및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해당 단과대의 담당자와 소통을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담당자의 이메일을 잘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 수강 신청 전에 제가 속해 있었던 단과대의 담당자와 상담을 잡고 이야기하며 저에게 맞는 수업들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p> <p>Iowa State University는 교환/국제 학생들에게도 현지 학생들과 동일하게 교내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므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경험도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교내 다이닝에서 일을 했지만,</p>

	<p>브라질에서 왔던 다른 국제 학생 친구는 교내 office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처럼, 찾아보면 정말 다양한 업무들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업무 포지션을 선택하여 일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여름에는 정말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다☹️ 추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춥고 겨울이 매우 긴 편입니다. 원래 겨울 부츠를 사지 않으려고 했지만, 다이닝에서 함께 일했던 셰프들이 거의 매주 저를 보면 스노우 부츠를 사야 한다고 독촉아닌 독촉을 했을 정도로 눈도 많이 쌓이고 미끄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 덕분에 스키 캠프, 기숙사에서 진행하는 game night 등 학교 측에서 다양한 행사들도 개최하고 오히려 재미있는 해프닝들도 많이 일어났기에 즐거운 기억도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위와 추위를 꽤 많이 타는 편이라, 특히 긴 겨울을 대비하여 한국에서 전기장판을 가져왔고 가장 유용하게 썼습니다. 혹시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꼭 준비해가시길 바랍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근처에 아무것도 없고 거의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안전합니다. 종종 학교 메일로 범죄 발생 알림이 뜨기도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자체가 매우 안전한 편이고, 혹시 밤에 돌아다닐 일이 있다면 'Safe ride'라는 학교 자체 서비스가 있어서, 어플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출발지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아마 새벽까지 하는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시간 상관없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숙소</p>	<p>학교기숙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홈스테이 ( <input type="checkbox"/> ) 외부 숙소(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Frederiksen court라는 교내 아파트형 기숙사에 거주했습니다. 저 포함 4명의 룸메이트가 한 flat에 살기 때문에 거실, 부엌, 화장실, 세탁기와 건조기를 공유하며 각자 따로 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매우 만족했고 가격과 위치, 독립성 모두를 따져봤을 때 교내에 있는 다양한 기숙사들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숙사들은 룸메이트와 방을 공유하지만 개인 방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 점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반면, Frederiksen court apt는 불편한 점이 거의 없었고 룸메이트들만 잘 만나면 누구보다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학교 Meal Plan ( <input type="checkbox"/> ) 학교식당 개별이용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홈스테이 ( <input type="checkbox"/> )  외부식당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직접 요리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기타 ( <input type="checkbox"/>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앞서 기재했던 것처럼 저는 아파트형 기숙사에 거주했기에 부엌에서 자유롭게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었고 Block meal plan 50끼를 구매하여 학교 다이닝에서 메뉴를 사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후문 쪽에 몇 가지 음식점들이 있고 버스를 타고 나가면 조금 더 많은 음식점들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밥을 사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숙사 건물마다 의무적으로 meal plan을 구매해야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선정하실 때 이러한 점 꼭 참고하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주했던 아파트는 meal plan이 필수가 아니어서 저는 1학기 때는 Block meal 50끼, 2학기 때는 25끼를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기숙사에서 학교 건물들까지 그리 멀지 않아서 날씨가 좋으면 걸어갈 수도 있고 학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처 인프라는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버스로 갈 수 있는 곳들이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차가 있는 친구들과 함께 가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그나마 큰 도시인 '디모인(Des Moines)'은 차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가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차가 없거나 버스가 가지 않는 루트 중, 특별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우버나 리프트도 추천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약 250만원	비행기 값이 많이 올랐을 때 출, 귀국했으므로 상대적으로 비용 多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출국 전, 학교 보험이 자동으로 들어지는 줄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비용에 관한 면은 전혀 몰랐습니다. 학교 도착 후, 보험 관련 설명회를 들으니 학교 보험료가 한화로 거의 몇 백만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waiver와 보험 관련 홈페이지를 싹 뒤져서 출국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 보험을 겨우 신청하여 학교 보험은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경험이였으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꼭 유학생 보험 필수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소	Frederiksen court apt 학기 당 \$2780	
식비	Block meal plan 50 meals= \$595 + α	
교통비	학교 버스 이용/ 공항 갔을 때 버스 비용 편도 약 \$75/ 우버 및 리프트 비용 \$α	
책값	첫 학기 교재 비용 약 \$50/ but, 딱히 필요 없었음	가끔 E-book이 필요한데, 이 비용은 U-bill이라는 학교 계정 인터넷 청구서에 자동으로 올라가므로, 필수라면 프로그램을 통해 지불하면 되고 선택할 수

		있고 교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면 'opt-out'버튼을 클릭하여 교재를 빼면 비용이 청구되지 않음
기타1	개인 여행 비용 약 \$3,500~4,000	친구 집에서 머물렀기에, 숙소 비용은 들지 않았음
기타2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전기 장판은 정말 필수입니다!!!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춥지만 전기 장판만 있으면 아무리 춥더라도 매우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 이 점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해외에서 1년 동안 사는 경험이 처음인지라 진짜 작은 것까지 정말 많이 챙겨 갔습니다. 아이오와는 인프라가 많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도움은 꽤 많이 되었지만, 미국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웬만한 것들은 현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이기, 스탠드, 멀티탭 등등 미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으므로 현지 도착하자마자 아마존 프라임으로 주문해두시면 하루 이틀 안에 배송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학생이라면, 아마 6개월간 아마존 프라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옷도 입는 옷들만 입어서 많이 필요가 없었는데, 저는 현지 도착 후 옷을 택배로도 받아서 다시 가져갈 때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없는 것들은 현지에서 살 수 있으니 너무 많은 물건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대입 전부터 미국에서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졸업 전에 교환 학생을 다녀온 것이 정말 감사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초반 3개월 정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느라 매일 새롭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나서는 춥고 맑지만은 않았던 날씨 탓에 조금은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다이닝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들과 직원들, 수업에서 친해졌던 친구들, 함께 교환 학생을 온 다른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이야기하며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 미국 다른 지역에 파견되어 있지만 함께 교환 학생을 와 있던 친구들과도 연락하며 다시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기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대부분이고 학기가 끝나기 직전에는 다이닝에서 친해진 친구의 초대로 홈파티, 운동회, 근교 여행 등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학기가 끝나기 직전에 이런 소중한 인연들이 더 많이 생긴 것이 아쉽지만 그 친구들과는 아직도 연락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기에 언젠가 다시 볼 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환 학생 기간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같은 기회가 또다시 주어진다면 저는 아마도 다시 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크고 작은 부분에서 배워가는 것이 정말 많았던 경험이었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할지도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수 있었던 개인적으로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학교 농구 경기 직관



카트장 체험



Ski trip



LA 여행



San Diego 여행



Joshua Tree National Park